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40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간추린 지구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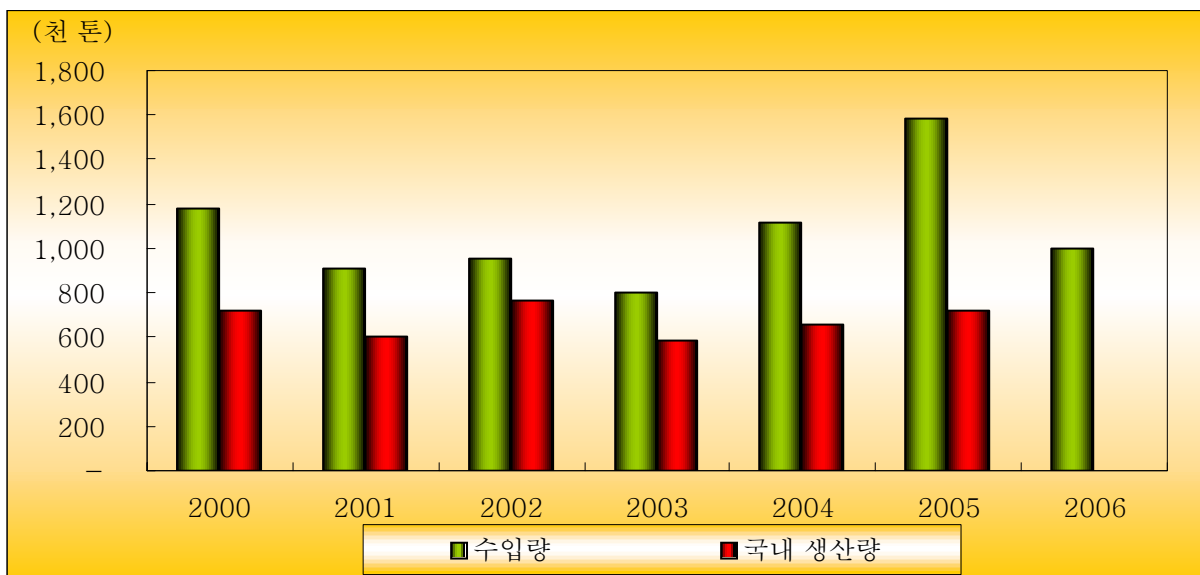
지구촌 이슈

2006년 중국의 어분 수입 동향 및 전망

■ 2006년, 중국의 어분 수입량 100만 톤으로 예상

- 2006년에 중국의 어분 수입량은 약 1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전년도 대비 3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0년대 들어 어분 수입량이 감소세를 나타나다 2005년에 158만 톤으로 최고치를 이루었음

【 중국의 어분 수입량 및 국내 생산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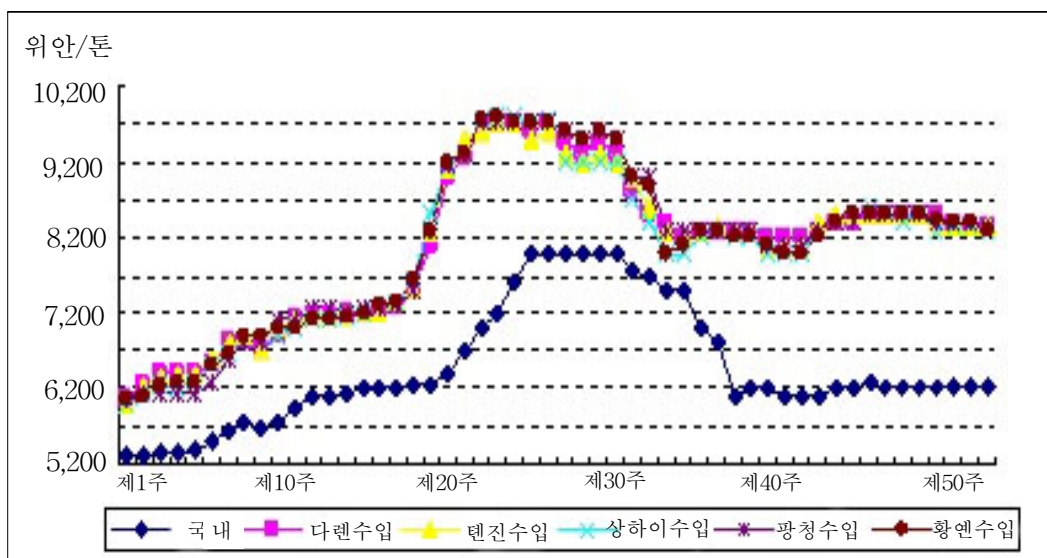
주 : 2006년도 어분 수입량은 추정치임.

- 월별로 보면, 1~8월까지 어분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9월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어분 수입가격이 높은 데 반해, 국내 양식업 발전이 미진했기 때문에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됨
- 한편 어분의 국내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는데 2005년에 약 72만 톤으로 2000년보다 0.3% 감소하였음
 - 어분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의 격차는 2005년에 86만 톤으로 2002년보다 4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어분 수입가격 국내 가격보다 높아

- 지난해 어분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며 평균 수입가격은 국내가격보다 약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어분 수입가격은 연초 톤 당 6,200위안(80만 원)에서 6월에 9,800위안(127만 원)으로 올랐는데, 6개월 동안 58% 상승하였음
 - 8월부터 공급량의 증가로 수입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9월 이후 톤 당 8,200위안(106만 원)의 수준을 유지하였음
 - 9월부터 어분 가격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원인은 중국의 대형 어분수입업자들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고가로 수입 어분을 회수하였기 때문임

【 2006년, 중국의 어분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 】



■ 어분 소비, 양식사료의 비중 가장 높아

- 어분의 소비구조를 보면, 수산 양식사료가 35~38%, 돼지 사료가 28~30%, 가금류 사료가 26~28%를 차지하였음
 - 2006년 경우 수산 양식사료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기타 사료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 중국의 어분 수입 감소할 듯

- 전 세계의 어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세계 어분 시장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에 중국의 어분 수입량은 국제 어분 가격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06년 10월에 중국·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향후 칠레산 어분의 수입이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예전에 페루에 의존해 왔던 어분 수입 구조가 변화되면서 어분 수입가격의 상승세가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중국은 조류독감과 돼지전염병이 극심하여 향후 이러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할 예정인데
 - 특히 고가의 수입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료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이은화, yhli19@kmi.re.kr>



주요뉴스와 분석

■ 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 위한 전략 수정

- 中國漁網 1월 29일자 소식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에 중국의 수산물 수출금액은 8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1위인 구운 뱀장어의 수출금액은 5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음
 - 뱀장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최근 안전성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
 - 이에 일부 중국 전문가는 뱀장어 수출입에 대해 안정적 수출을 위한 국가 경영체제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주요 가공수출 품목인 오징어류의 수출금액은 2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 경제적 이익측면에서 저가 품목인 오징어보다는 향후 다랑어 등 고가 수산물 가공수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다랑어 가공산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태국, 멕시코, 에콰도르 등 기존의 다랑어 공급 시장에 중국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중국은 최근에 수산물 수출 증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수출전략을 다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 기존의 생산위주 정책에서 시장개발 전략으로, 저가 수산물 가공수출에서 고가 수산물 가공수출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중국 수산물의 위상을 높일 예정임

<이은화, yhli19@kmi.e.kr>

■ 수산청, 어업 재도전 지원사업 개시

- 수산청은 어업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어업담당자·신규노동력 확보에 관련된 기존의 사업을 강화한 '어업 재도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음
 - 기존의 사업도 어업취업지원박람회 개최 및 어업 현장연수 실시 등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재의 직업을 떠나 수산업에 재도전할 기회를 갖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어업취업촉진정보정비사업'의 경우 어업 참가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개최되던 어업취업지원박람회에 덧붙여 직장인, 학생이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에 참가하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 등을 배울 수 있는 '어업제도 전준비강습'을 실시하여 취업도전 기회를 늘리고
 - 또한 기존의 신규취업자 확보·육성지원사업을 활용, 6개월 어업현장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취업으로의 연계 강화를 도모함
- 동시에 '캐리어 활용형 도전 플랜 지원사업'이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이는 다른 업종에서 축적한 경험·기술을 활용하여 어업분야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 참여 가능성이 있는 해면, 지역 등의 경영자원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지역과 연계한 뒤, 새로운 비즈니스 플랜을 수립하면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뒤 어업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것임
 - 사업 대상은 어떠한 분야의 기업·조직이어도 관계없으나, 원칙적으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일관된 비즈니스 플랜을 수립하여 '새로운 형태로' 수산업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산청은 비즈니스 플랜 수립부터 어업 취업 이후의 경비 등도 보조할 예정임
- 일본의 경우 어업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신규취업자의 감소로 수산업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가운데 일본 수산청은 이 사업을 통해 장래성 있는 새로운 사업형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는데, 어업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사업을 보다 보완·강화한 정부의 시도가 어떠한 결과를 거둘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임경희, imkh@kmi.re.kr>

■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복 양식에 대한 관심 증대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식산업은 갑각류 생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이 산업에서 작년에 1천 940만 달러어치를 생산하였다고 밝히면서, 특히 전복 산업은 기타 다른 양식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속하며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라 말하였음
 - 더불어 이 관계자는 과거 10년 전에는 양식 전복 생산이 단지 10톤에 불과하였으나 작년 900톤, 올해는 1천 톤을 기록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라 말하였음

- 현재 이 나라의 활 및 캔 전복은 국제적으로 kg 당 22달러에서 38달러로 거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전복 수입국으로는 주로 중국과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예전에 이 산업은 정부와 법규, 여러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과거 정부는 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해조류 양식처럼 이 나라의 중추 양식 산업으로 전복양식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이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을 개발하며 양식분야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또한 몇몇 남아프리카공화국 업체들도 10~12년을 기다려 완전히 성장한 크기의 전복을 판매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전채요리에 알맞은 크기인 3~4년간 성장한 품목들을 팔면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복류 생산은 2005년 2천 100톤에서 2006년에 3천 100톤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일본으로의 수출도 같은 기간에 200톤에서 360톤가량으로 증가하고 있었음
 - 2006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활전복 가격은 kg당 45달러로 높은 편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복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이처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 전복 양식 생산 증대는 향후 우리나라 전복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앞서는 남아프리카산 전복과의 부분적인 경합이 예상됨

<강형덕, thymos@kmi.re.kr>

■ 에콰도르, WTO 관세 인하 대상에서 다랑어 제외시키기 위한 적극적 움직임

- 에콰도르 국립수산상공회의소의 세사르 로혼(Cesar Rohon) 회장은 지난 1월 28일부터 EC의 브뤼셀을 방문, 교역국(General Trade Directorate) 대표를 만나 WTO 협상에서 다랑어 관세 인하 반대를 주장하는 자국의 입장을 EC가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고려, WTO 논의에서 다랑어는 관세 인하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에콰도르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시아 시장이 전체 다랑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멕시코를 포함한 에콰도르 등 남미 지역 다랑어 생산량은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 다랑어가 WTO 협상에서 관세 인하 품목에 포함되면 EC를 비롯한 수출 시장에

서 아시아산 수입 다랑어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에콰도르는 극심한 가격 경쟁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됨

- 세사르 로혼 회장은 다랑어를 관세 인하 제외 품목으로 제안하며, 그 대안으로 현행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Tariff Preference)를 공고히 할 것을 주장하였음
 - GSP란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및 완제품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해주는 제도로써 내년 2008년에 GSP의 효력이 만료될 예정임
 - 현재 에콰도르는 GSP의 일환으로 EU로부터 다랑어 수입량의 14%를 할당받고 있음
- 또한 에콰도르는 WTO 협상 테이블에서 다랑어의 수입 관세를 약 7%로 하자는 논의 가능성에 대해 적극 반대하였음
 - 현재 에콰도르에서는 약 15만 명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종사자의 약 80%가 다랑어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다랑어 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지난 7월 중단되었던 WTO 협상이 재개되면서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자국 경제에서 중요한 다랑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에콰도르 정부의 적극적 움직임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정명화, jmh@kmi.re.kr>



간추린 지구촌 소식

■ 중국, 내수면 수산물 가공업 발전 가능성 커

- 중국의 내수면수산물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수면수산물 가공품은 전체 가공수산물의 2%에 불과함
 -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향후 자국내 소비용으로 내수면수산물 가공업의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전망하였음

■ 다롄시, 해삼·전복에 대한 지리표시제 도입

- 다롄(大連)시의 해삼과 전복은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기타 지역의 해삼과 전복을 다롄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다롄시정부는 지리표시제를 도입하여 해삼과 전복을 보호하는 동시에 두 품목의 브랜드화를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음

■ 푸젠성, 위치 추정 핸드폰 보급

- 푸젠(福建)성 원저우(溫州)시는 어민들에게 위치 추정 핸드폰을 보급하기로 하였는데, 핸드폰을 구매한 어민들에게 1인 당 1,000위안(약 13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핸드폰에는 GP-SONE가 내장되어 있어 정확하게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도 할 수도 있음

■ 일본 외무성, 수리남공화국에 어업분야 무상자금협력

- 일본 외무성은 일본 정부가 수리남공화국 '파라미리보 소규모어업센터 정비계획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Small-Scale Fisheries Center in Paramaribo)' 실시액 8억 1700만 엔을 한도로 하는 무상자금협력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수리남은 영세어업 관련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파라미리보의 수리남강 서안역에 양륙잔교, 제빙·저빙동, 어구수선소 같은 기능적인 양륙시설을 건설, 조업능률 개선, 수산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 보증·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 '파라미리보

소규모어업센터 정비계획을 책정, 일본 정부에 무상자금협력을 요청하였음

■ 일본 환경성, 지구 온난화 가속으로 일본 해변의 90% 소실 예상

-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UN의 보고서가 2일 발표된 것에 맞추어 환경성은 지금까지 일본 내 조사연구결과를 종합한 자료집을 발표하였음
 - UN 보고서는 세계의 해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일본 연안의 해면이 1m 상승할 경우 해변 면적의 90%를 상실하고 간석지가 사라져 도쿄, 오사카만 등에서는 대책마련에 7조 8천억 엔이 소요되는 등 거액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수온이 2도 전후 상승한 것만으로도 콩치, 정어리, 고등어 등의 어장이 북상하고 복어를 양식할 수 있는 해역이 축소되며 대형 해파리에 의한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었음

■ IATTC, 특별회의 개최

- 고베에서 다랑어 자원에 관련된 5개 지역어업기구의 회의가 개최된 이후, 전미열 대다랑어위원회(IATTC)의 특별회의가 2007년 2월 5일에서 10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되었음

■ 베트남, WTO가입으로 수산물 수출 증대 예상

- WTO 가입국인 베트남은 올해 수산분야의 수출이 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업자와 수출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울러 WTO 가입은 베트남 식품안전기준과 위생수준을 높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이며 베트남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 필리핀은 향후 5년 내에 국제 새우시장에서 중국 다음의 위치를 점하려는 계획이며 정부 관계자들은 제1의 새우 생산국인 중국이 자국의 수산분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해 줄 것이라 믿고 있음

- 또한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장관인 압(Yap)은 중국 총리인 원자바오(Wen Jiabao)의 방문에 맞춰 농업관련분야에 협력하기 위해 308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 말레이시아, 틸라피아 양식 추진

- 말레이시아는 제9차 말레이시아 경제개발계획(Ninth Malaysian Plan)에 맞춰 상업적인 양식 계획을 추진함
 - 말레이시아는 2010년까지 붉은 틸라피아를 연간 9천 톤 생산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럽과 미국 시장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붉은 틸라피아를 수출할 계획으로 있음

■ 미국 수산물 소비, 레스토랑에서 필렛·스테이크 선호

- 미국의 2005년 한 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6.2 파운드(2004년의 16.6파운드보다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수산물 소비 물량은 48억 파운드(652억 달러)로 이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소비가 많은 나라임
 - 전체 소비 물량 가운데 약 445억 달러 어치의 수산물이 레스토랑에서 소비되고, 가정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은 205억 달러로 나타나, 미국인은 주로 레스토랑에서의 수산물 소비를 더욱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음
 - 주로 신선·냉동된 어류 및 갑각류의 소비가 1인당 약 11.6 파운드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필렛 및 스테이크 형식의 수산물도 약 5 파운드씩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앵커리지, 베이징 민간업체와 MOU 체결로 수출확대 기대

- 미국 알래스카의 남부 도시 앵커리지 시의 앵커리지경제개발업체(Anchorage Economic Development Corp, AEDC)는 중국 베이징 물류업체 Liqiao Bonded Logistics Development사와 MOU를 체결하고, 베이징 Li Qiao 자유무역지대에 냉동연어필렛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 동안 앵커리지 시에서는 유콘 강에서 많은 연어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으로 인해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였음
 - 그러나 중국 업체와의 MOU 체결로 AEDC는 자국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연어를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거점으로 연어의 판매 시장을 더욱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2006년 수산물 수출 크게 증가

- 2006년 아르헨티나의 수산물 수출은 12억 2,300만 달러로 전년의 7억 9천만 달러보다 54%가 증가하였음
 - 8월의 수산물 수출은 1억 3천만 달러로 연중 수출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이는 1월의 5,800만 달러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임
 - 또한 두드러진 특징은 어류와 갑각류의 가공을 거치지 않는 수산물 수출이 약 8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2005년의 4억 4,000만 달러보다 무려 83%가 증가한 반면 가공수산물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3,800만 달러에 그침
 -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수산물은 주로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으로 수출되었음

공 지 사 항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2007. 2. 17 ~ 2. 19)로 다음주 지구촌 해양수산은 휴간합니다. 2월 26일에 358호가 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책동향연구실 연구원 일동